

도,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 선정

내년부터~2021년까지 2,018억원 투입 예상...신산업·시장 창출로 3만6천여개 일자리 효과 기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장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도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을 28일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개인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의 소재 및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전북 중심의 안전보호제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을 1년 반 넘게 준비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률(OECD 기준)은 OECD 29개 국가중 1위로 국가브랜드 타격이 크고, 뿐만 아니라 2013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5조원에 달해 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2013년 334억달러에서 2020년 555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7.3%의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현재 국내 시장도 2007년 1.9조원으로

서 2-13년에는 3.5조원으로 연평균 10.9%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는 대부분 북미(31.5%)와 유럽(28.8%) 등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제안한 이 사업은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18억원(국비 1,252억원, 지방비 485억원, 민자 281억원)의 투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기술상용화를 통한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3만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안전보호 제품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해 저가·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안전보호 제품을 보급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사회의 구축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장되기 위해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6개월간 심사 받아야 한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을 조기에 실현시킴으로써 안전보호 제품시장을 전북도가 꼭 선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시작

군산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스스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구축된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는 기존 성인 위주의 정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홈페이지를 벗어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감 있는 디자인과 정보들로 이뤄졌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 등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로 특화시켰다.

홈페이지 구성은 ▲군산시에 대한 정보와 역사·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담은 '일러주세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어린이 행복지원사업, 어린이 이용시설을 소개한 '어린이 행복도시' ▲어린이·청소년회의의 활동공간, 제안창구 등을 운영하는 '어린이 참여도시' ▲어린이의 학부모들이 소통하는 공간 '소통마당'으로 구성됐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로 접속해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인사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과 성과, 발전방향 등을 정리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 언론 보도 내용, 단계별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연금개혁 추진 배경과 방향,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과정, 정당 등에서의

논의 과정, 개정안 합의 등을 상세히 다뤘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첨부해 추진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백서를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및 학술연구 참고자료로 하게 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40개 넘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기관이 40개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송인석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초실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0개(33.3%)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서는 마사회, 한전, 한국감정원 등 8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농어촌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2개 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이행 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를 4월까지 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5월 중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의 성과급을 준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벌칙도 부과한다. 정부는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5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개혁과제"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주기자】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지난 29일 남원시 금지면 내기마을회관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유석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안용민 한국지식예방법협회 회장과 마을주민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녹색마을을 현판식을 기했다.

국내 식품기업 3개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양해각서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는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239 등 국내 식품기업 3개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씨엔씨레그비오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유)씨엔씨레그비오는 커피원두를 수입·가공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투자양해각서와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에 생산 공정과 세계 커피를 전할 수 있는 커피전시장을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의국인투자신고를 마친 (주)코아바오는 국내 식품기업인 (주)프레시오와 러시아 합작투자 기업으로 올해 9월 천연발효 음료 및 조미료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진행 중이다.

식품벤처기업 239는 귀뚜라미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생산 관련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올해 안에 부지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하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은 "올해 하반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단지 완공을 앞두고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가 신성장동력인 식품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도, 들녘경영체 육성 39곳 선정

전국최다...국비 15억원 지원 받아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2016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전국 최다 지역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39개소가 '2016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선정돼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국 규모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35개소, 교육·컨설팅사업 8개소 등 116개소이다. 이중 전북은 34%를 차지하는 규모를 차지해 전국 최다 지역 선정을 하게됐고 그 뒤를 전남(37개소), 경기(5개소), 강원(5개소) 등이다.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선정하며 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 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한다.

교육·컨설팅은 선정된 들녘경영체에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교육과 작부체계, 경영체 관리,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내 들녘경영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88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이며, 공동경영면적은 16,802ha로 전체 비 재배면적 121,765ha의 14%정도 규모이다.

또한,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8,927호이며, 들녘경영체별 평균 공동경영면적은 244ha에 이른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조직화·규모화된 공동농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등 공동이용 시설·장비와 경영개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이중 시설·장비는 교육·컨설팅을 1회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중 조직운영 실태 등 전문평가단이 서류

【정영수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문과 감성의 사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 1회 교육
-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명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치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강의양쪽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 1호 강사
- 한국음반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라더십협회 대표
- 스피치&라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역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ljmaeil.com